“이타적 삶 살면 건강히 살 수 있다”



新 불교사자성어

㉕ 요익중생(饒益衆生)

‘요익중생(饒益衆生)’은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준다’는 뜻이다. ‘요익중생(饒益衆生)’이라는 말은 보살행 · 자비행 · 이타행 · 중생제도 · 중생교화 등과 같은 말로서, 특히 〈화엄경〉에 많이 나온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여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의미)’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여,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의미를 ‘중생제도’ 즉 ‘이타행’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좁은 소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삶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투쟁하며 남과 싸워야 한다. 모든 싸움과 투쟁은 이기(利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기와 악은 그 뿌리가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이기주의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기사건 최다 발생국이다. 사기 행각을 벌여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를 확장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는 행복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행과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남과 열심히 싸워야 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투쟁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투쟁과 갈등의 원인은 모두 이기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투쟁적인 것은 이기주의가 팽대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소아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 이타적인 삶이 곧 요익중생(饒益衆生)이다. 요익중생의 방법은 바로 ‘보살행’, ‘자비행’, ‘이타행’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다.

남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은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다. 희열과 기쁨이 가슴에 충만하고 가득해진다. 남을 위하는 이타행, 자비행, 보살행은 어디를 가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한다.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한다. 반면 이기적인 삶은 삭막하고 각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깍쟁이를 양산해서 사회를 비인간적인 사회로 만든다.

며칠 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몇몇 아는 보살들이 최근 남편을 다 잃었다는 것이다. 모두 아무런 증세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암으로 죽는 바람에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내가 물었다. “그들은 돈이 많소?” 돈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네. 돈이 많다면 좋은 일, 이타행을 많이 하면 되고, 이타행을 많이 하면 가족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더니, “돈들은 많은데 인색하고 좋은 일은 할 줄은 모른다.”고 했다.

의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타행, 이타적인 삶을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첫째는 무언가 가슴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기쁨을 느끼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면 건강할 수가 없다. 마음이 항상 불안, 초조하기 때문이다.

요익중생은 불교도들의 기본 정신이다. 특히 보살행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도들에게는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익중생의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보시(布施) · 애어(愛語) · 이행(利行) · 동사(同事)이다. 보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할 것이 없고, 애어는 ‘부드러운 말’, ‘교양 있는 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말’, ‘아름다운 말씨’ 등이다.

이행(利行)은 이타적인 삶, 이타행을 뜻한다. 동사(同事)는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함께 하면서 점점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돈이 있어야만 요익중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물음은 답에 답은 물음에 있다”



격절록 강설

㉕ 설봉고간 평창 1

[評唱 1]

師云. 雪竇拈來 也是好心 也是不好心. 何故 一手擡 一手搦. 僧問雪峯 “古澗寒泉時如何” 峯云 “瞪目不見底” 僧云 “飮者如何” 峯云 “不從口入” 後人只管用作不答話會 作恁麼去就 驢年夢見. 汾陽謂之借事明己.

설두의 염(拈)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억눌렀기(一手擡一手搦) 때문이다.

어떤 스님이 설봉에게 물었다.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

설봉이 말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스님이 말했다.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봉이 말했다.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단지 “대답하지 않겠다(不答話)”고 한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다면 나귀 해나 되어서야 꿈속에서라도 보게 될 것이다. 분양(汾陽, 분양선소)은 이를 일러 ‘예나 비유를 빌려 자기를 밝힌 것(借事明己)’라고 한다.

古澗寒泉時如何 瞪目不見底 此明他脚跟下事. 雪峯是一千五百人善知識 依前用他問處 答道 瞪目不見底. 為他問道脚跟下事. 似古澗寒泉相似 這老漢不妨親切. 古人道 “問在答處 答在問處” 不見僧問雲門 “佛法如水中月是否” 門云 “清波無透路” 且道 是同是別.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발꿈치 아래의 일(脚跟下事, 본분대사)을 밝힌 것이다. 설봉은 천오백인선지식(一千五百人善知識)이라서 여전히 그가 물은 것에 의해서 답을 해 말하기를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물은 것이 발꿈치 아래의 일을 말하는 것인가? 마치 옛 골짜기에 차가운 샘물과 같으니, 이 노장이 아주 친절했다. (그래서) 고인(古人, 남원혜옹)이 말하기를 “물음은 답에 있고 답은 물음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보지 못했는가!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에게 물었다.

“불법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문이 말했다.

“맑은 물결엔 꿰뚫은 흔적이 없다.”

자, 말해보라! 같은가, 다른가?

---

*一手擡一手搦(일수대 일수닉)은 추켜올리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였다는 뜻이다

*차사문(借事問)은 분양선소 선사가 학인의 물음을 18종으로 분류한 것 중의 하나로 예나 비유를 빌려서 묻는 것을 뜻한다.

*“그가 물은 것에 의해서 답을 해 말하기를”이라는 뜻은 그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는 뜻이다.

*問在答處 答在問處(물음은 답에 있고, 답은 물음에 있다)는 선림승보전에 남원혜옹 선사의 말씀으로 전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㉕ 이해의 길 5

모든 것은 ‘근본’에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시비(是非)를 초월한 단어다. 그런데 그 단어가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종교다. 종교적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면 해당 종교의 이름 뒤에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따라붙기 때문이다. 종교적 분쟁이나 갈등은 각자의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에 집착해서 다른 생각과 방식을 무조건 이단으로 취급하고 배척하는 데서 발생한다. 종교에서 ‘근본주의(根本主義, fundamentalism)’는 교리의 근본에 충실하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종교에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본래 뜻과는 다르게, 분쟁과 갈등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언제부터인가 ‘근본’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섞이기 시작했다. 이런 부적절한 사회적 현상의 영향이 불교에도 조금은 미친 것 같다. ‘근본불교’라는 용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불교는 결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가르침도 널리 포용하는, 그야말로 ‘열린’ 자세를 지향한다. 석가모니 붓다의 근본 가르침 자체가 본래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불교가 대승불교,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까?

근본불교란 석가모니 붓다가 입멸한 후 100년까지의 불교를 가리킨다. 붓다 입멸 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 붓다의 가르침과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교단은 전통을 지키려는 상좌부(上座部)와 개혁적인 대중부(大衆部)로 분열한다. 다시 상좌부는 10개, 대중부는 8개로 분열하여 총 20개의 부파가 활동하는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부파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독립적인 아비달마(abhidharma), 즉 논서를 갖춘다. 근본불교는 이러한 분열이 시작되기 전의 불교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근본불교는 원시불교나 초기불교 등으로도 불린다. 혹은 불멸 후 30년까지, 즉 붓다와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근본불교라 하고 그 이후 100년까지를 원시불교라 구분하기도 한다. 근본불교는 석가모니 붓다의 깨침을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인 연기(緣起)와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의 가르침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와 선불교라는 옷을 입고서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본불교를 다소 소홀히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근본불교는 대승불교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불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으니, 어찌 보면 한국불교는 기초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건물을 올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일이다.

또한 우리는 대승과 소승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근본불교를 소승불교와 동일시해왔다. 소승(hina)은 ‘열등하다’는 뜻인데 붓다의 근본 가르침을 열등한 가르침이라 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대승불교라는 자만과 소승불교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근본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낳은 결과다. 다행히 요즘은 소승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고, 빠알리어로 된 〈니까야〉가 널리 소개되어 가공되기 이전의 붓다의 원음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호에서 불교를 100층 건물에 비유하였다. 그런데 ‘붓다 빌딩’은 처음부터 100층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 1층을 세우고 차례대로 2층, 3층, 10층, 100층까지 증축한 것이다. 근본불교는 바로 ‘붓다 빌딩’의 1층이다.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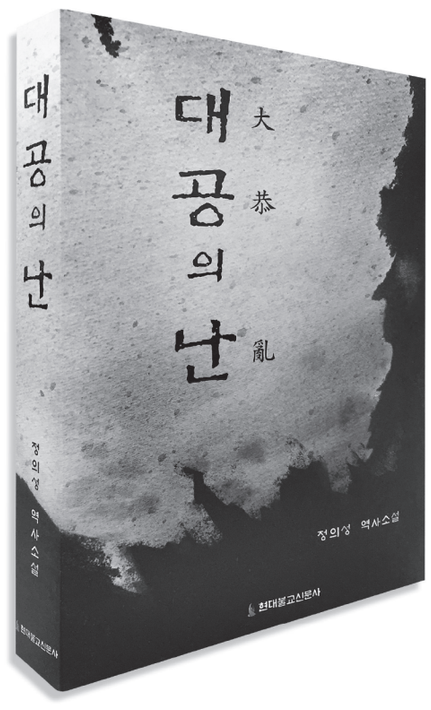
처음 ‘붓다 빌딩’을 세우고 증축할 때는 승강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이나 5층을 가기 위해서는 각 층의 계단을 밟으면서 걸어야 했다. 건물이 높아지면서 붓다 빌딩에 승강기가 설치되자 20층이나 80층까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층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모른 채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기로 하자. 100층을 올라갈 때도 승강기는 근본불교가 들어서있는 1층에서 타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